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 손해보업계, 순이익 기록 불구 시장 상황 여전히 불투명

- 각 손해보험회사들이 발표한 FY2009 1분기(2009년 4~6월) 결산 자료에 따르면,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환경 개선 등의 효과로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 대부분이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최근 금융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유한 금융파생상품의 손실액이 다소 회복되는 등 자산운용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, 1/4분기에 큰 자연 재해나 사고가 적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한 것이 순이익을 거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.
-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 대부분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보임.
 - 작년 필라델피아 콘솔리데이티드를 인수해 올해부터 수익이 반영된 도쿄해상을 제외하고 상위 5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특히, 업계 1위인 도쿄해상의 자동차 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.7% 감소한 것을 비롯해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손해보험재팬도 각각 2.2%와 1.8%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수입보험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.
- 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자동차보험시장 불황, 대형 자연 재해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 등의 요인들이 향후 손해보험업계의 성장에 걸림돌이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차·대형차 판매 증가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, 그리고 새로운 고객군인 젊은 계층들의 신차 구입이 경기 침체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자동차보험시장이 회복되는데 주요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.
 - 또한 올해 여름 집중 호우와 잇따른 지진 피해로 보험금 지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의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임.

(마이니치신문 · FujiSankei Business I, 8/12)